청도온주(靑島溫州)



▲ 청도온주

1. 육성경위

일본 시즈오까현(靜岡縣)에서 미장계온주(尾張係溫州)의 변이주로 발견된 후 1965년에는 시즈오까현(靜岡縣)의 장려품종으로 선정된 당도가 높은 품종으로 일본에서는 인기가 높다.

2. 주요특성

수세 및 수량성 나무모양은 직립성이며 묘목때부터 생육이 양호하고 성목이 되어도 수세가 강한 품종이다. 발육지는 봄순에서도 잘 자라서 하늘로 향해 자라는 가지가 많고 밀생된다. 잎의 크기는 보통온주밀감 가운데는 보통이고 잎색은



▲ 청도온주의 과실

◇ 과실품질

지 역 별	90% 착색일 (월. 일)	과실무게 (g)	과 형 지 수	과육비율 (%)	당 도 (Bx)	산 함 량 (%)	당 산 비
제 주	12. 3	124.0	143	73.6	11.8	1.29	9.2
일 본	12월 상·중순	128.0	137	75.0	12.0	0.84	14.3

자료원 : 제주 - 제주도농업기술원 90~ 98년 조사성적 평균
일본 - 시즈오까현(靜岡縣) 감귤시험장 82~ 85년 조사성적 평균

진하다. 가지는 수분이 적고 단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고접용 중간대목으로 이용한 경우는 활착율이 좋지 않다. 제주도농업기술원 감귤품종보존포에서의 만개기는 5월 26일경으로 다른 보통온주밀감에 비해 2일 정도 늦다.

어린나무에서도 조기 결실성이 비교적 양호하다. 그리고 직화보다 유엽화 비율이 다른 품종에 비해 많으며, 이 때문에 개화시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일반 보통온주밀감에 비해서는 해거리현상이 강하지만 당도가 높은 고당도 품종 중에서는 결실이 안정된 품종으로 나무외부에 과실이 결실하는 성질이 강하다.

과실특성 및 품질 과실이 크고 과형지수가 143정도로 편평하며 과피는 유포가 작아 매끈하고 모양이 매우 양호하다. 그리고 과피두께가 약간 두껍고 단단하므로 부피과 발생이 적다. 그러나 결과수가 적거나 과경지가 강한 경우 과실이 지나치게 크고 유포발달이 많아 과피가 거칠어 진다.

90% 이상 착색이 되는 12월 상순 제주도농업기술원 감귤품종보존포에서의 과즙의 (90~ 98년 평균) 당도는 11.8 Bx, 산함량은 1.29%이며, 저장성이 강한 품종이다. 그리고 과실이 크면서도 입에서 느끼는 맛이 좋고 육질은 유연 다즙한 것이 이 품종의 장점이지만, 알알이(사낭)가 두껍고 단단한 것이 결점이다.

숙기 및 출하기 12월에 수확하여 저장한 후 2~4월에 출하하는 만생품종이다.

3. 재배상의 유의점

재배적지 선정 햇빛쪼임이 좋고 배수가 양호한 산남지역의 서리가 늦게 오는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

이 품종은 환경조건에 따라 품질차이가 심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일조가 부족하거나 토양수분이 많은 감귤원에서는 당도가 낮고, 둥근과실(요고과)이 된다. 그리고 고지(표고)가 높고 적산온도가 낮을수록 착색이 늦고 당도가 낮으며 품질차이도 많이 난다. 따라서 적지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재배관리 **정지·전정** - 재식거리는 나무간 간격을 넓게하여 독립된 나무를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 영양생장이 강한 청도온주는 봄순길이가 10~15cm, 5~7잎에서 자기적심을 하는 나무모양을 만들어 주는 일이 해거리 방지의 기본이다. 그래서 안정된 나무꼴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높이를 낮게 하고 약간 벌어지게 자라도록 골격유지에 노력한다.

그리고 가지수를 적게 만들어 주고 나무 내부에 투광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솎음전정을 위주로 한 약전정을 실시하고 가지유인도 같이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다.

열매솎기 - 유엽화에 대한 꽃봉오리 따기를 기본적 관리로 실시하여 풍작년에는 5~6잎 이상의 유엽화를 6월 상순 이전에 따낸다. 열매솎기는 가지별 전체 열매솎기를 실시하여 해거리를 줄여준다.

수확, 예조 - 착색이 늦어도 과육은 성숙하므로 70~80% 착색시 수확하여 저장한다. 그리고 착색이 한나무에서도 불균일한 경우가 있으므로 2회로 나누어 수확한다. 기온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50% 이상 착색시 수확하여 부피과 발생을 예방하지만 너무 일찍 수확하면 저장해도 완전착색이 안되고 과피색이 불량해지며, 호흡작용이 왕성하여 과실이 위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조가 다른 품종보다 늦게되므로 강하게 실시해야 한다. 예조가 잘 안되면 장기 저장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4% 이상 감량되도록 강하게 예조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양관리 및 시비 수세가 강하고 영양생장형이지만 수세를 약하게 하려고 비료를 적게 주면 해거리를 하므로 여름비료를 중심으로 적정시비를 실시한다.

토양관리는 토양표면에 뿌리가 잘 자라게 만들어 품질향상을 시킨다. 지표층이 비옥한 토양에서는 발육지가 너무 자라 웃자란 나무꼴이 되므로 척박한 토양에서 유기물을 주면서 재배하는 것이 관리면에서 쉽다.

수태랑온주(壽太郞溫州)

1. 육성경위

1975년 일본 시즈오까현(靜岡縣)에 있는 화산회토 토양지대인 누마쯔시(沼津市)에서 1964년 정식한 청도온주(靑島溫州) 중 가지 마디길이가 짧고 작은 잎으로 잎색이 연한 가지변이를 발견하여 과실 특성을 조사한 결과, 당도가 높는 등 우수성이 인정되어 1984년 수태랑온주(壽太郞溫州)로 등록된 품종이다.

2. 주요특성

수세 및 수량성 가지의 분지각도가 좁고 나무모양은 직립성이지만, 수세가 약하고 왜성화되므로 청도온주와 구분이 가능하다. 가지는 가늘고 밀생하며 마디길이가 짧고 탄력성이 없이 단단하다. 잎은 작고 청도온주보다 잎색이 연하다. 그리고 접목시 유합이 잘 안되면 접목부의 기부가 비대하여 혹이 되기도 하며 강풍